

# 朝鮮時代 救急醫書의 書誌的 考察

李 魯 國\*

## <目 次>

- |                              |                               |
|------------------------------|-------------------------------|
| I. 緒 論                       | IV. 國內外 諸書目上 救急<br>醫書의 書誌的 分析 |
| II. 中國 救急醫書의 傳來 및<br>國內刊行    | V. 結 論                        |
| III. 朝鮮時代 救急醫書의 編<br>纂 및 刊行史 |                               |

## I. 緒 論

이 研究은 朝鮮時代에 編纂, 刊行된 醫書中 救急關係 書籍을 書誌的으로 分析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 醫學분야도 일찍이 中國의 影響을 받아 三國時代때 부터 傳來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救急醫書는 최초로 百濟에 수입되어 高麗를 거쳐 朝鮮 前期까지 이어져 오면서 朝鮮 固有 救急書의 刊行에 큰 影響을 미쳤다.

이로 인해 朝鮮에서는 世祖, 成宗등의 醫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전반적인 醫書刊行은 물론, 이무렵 救急醫書에 대해서도 활발한 刊行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本 研究에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朝鮮王朝實錄》, 《高麗史》등 각 史料와 醫學관계 年表, 中國醫學史

\* 大林專門大學 文獻情報科 전임강사

관련자료를 통해 中國醫書中 救急書의 傳來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이들이 傳來된 후 國內에서의 刊行 상황,

둘째, 이들의 영향으로 世祖代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朝鮮 救急醫書의 編纂과 刊行的 배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셋째, 우리나라 역대 書目을 비롯, 國內外 書誌 및 古書目錄등에 발견되는 救急書등을 書誌調査를 통하여 分析, 綜合하여 朝鮮 救急醫書의 체계를 세우는데 그 目的이 있다.

本 研究에 있어서 실제 입수가 가능한 자료는 實物을 대상으로 分析하였으나 여건상 입수가 불가능한 資料는 文獻調査에 의존하였다.

## II. 中國 救急醫書의 傳來 및 國內刊行

전반적인 醫書의 傳來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文獻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本 장에서는 그중에서 구체적인 救急醫書의 傳來에 대해서만 李朝實錄을 비롯한 諸역사적 史料와 國內 諸書目, 年表등에 의거하여 調査한 바를 기록하기로 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개의 다른 주제영역과 마찬가지로 醫學분야도 三國時代부터 中國에서 다수의 方書들이 수입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救急관련 醫書로는 晋代 葛洪의 著書인 「肘後方」이 百濟에 수입된 것이 그 최초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日本 永保元年 丹波雅忠이 晋唐方書에서 救急方을 摘錄하여 「醫略抄」 1卷을 撰하였는데 이 冊중에 「百濟新集方」에서 引用한 方文이 있다<sup>1)</sup>고 한데서 本書가 救急의 내용을 포함한 醫書로서 百濟에 수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기록외에, 물론 「百濟新集方」의 실체가 어떠한 지는 전하기 않기 때문에

1) 金信根, 韓醫藥書故,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9, p.1. 부록연표.

확실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本草學的 지식에 근거한 民間醫藥의 方書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의 編纂에 「肘後方」이 중요한 참고자료로써 인용된 사실로 미루어 보거나, 「肘後方」이라는 명칭이 「肘後備急方」의 簡稱<sup>2)</sup>이라는 점에서도 本書는 民間醫藥의 救急方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本書는 高麗 文宗 13年 2월에 新雕 73板등을 進하여 秘閣에 두었다<sup>3)</sup>는 記錄이 있어 本書가 百濟에 수입된 후 高麗에서 新刊되었음을 알게 한다.

朝鮮初期에는 高麗로 부터 전해져 온 中國의 唐, 宋, 元의 醫方書들이 醫人들의 왕래와 함께 明으로 부터 다수 수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世宗 12年 3月 醫學取才의 敎書로서 詳定所가 주로 宋, 元대의 方書 25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千金翼方」이라는 唐代의 救急醫書가 포함되어 있는 것<sup>4)</sup>으로 보아 이는 明으로부터의 救急方書 수입을 시사한다 하겠다.

또 世宗 15年 6월에 완성된 「鄉藥集成方」과 世宗 27年 10월에 완성된 「醫方類聚」에 引用된 方書<sup>5)</sup>들에서도 다수의 救急方書를 찾아볼 수 있는데 「胎產救急方」, 「千金方」, 「千金翼方」, 「海上仙方」, 「葛氏肘後方」, 「救急仙方」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중 「千金方」은 唐代 孫思邈의 撰으로 「備急千金要方」과 「千金翼方」의 簡稱<sup>6)</sup>이라 하여 앞서 언급한 「千金翼方」과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다. 端宗 2年 2월에 威吉道都節制使가 啓하여 本道에 醫를 業한 자가 없고 또 方書도 없어 사람들이 많이 夭折하니 請컨대 方書 및 그 道에서 産치 않는 鄉藥을 보내 주기를 원하므로 禮曹에 下하여 상의케하여 「拯急遺方」등 각 5件을 印하여 약재와 같이 下送

2)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127.

3) 高麗史, 卷八, 文宗 十三年 二月 甲戌.

「...進新雕 後方七十三板疑獄集一十一板川玉集一十板知京山府事殿中內給事李成燾進新雕醫書六白八十板詔置秘閣...」

4) 世宗實錄, 十二年 三月.

「...詳定所啓 醫學取才...醫學...千金翼方...」

5) 「鄉藥集成方」, 「醫方類聚」의 引用書目 참조.

6) 中國醫學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 p.170.

케 하였다<sup>7)</sup> 고한 사실은 明의 葉尹賢이 撰한 「拯急遺方」이 이미 端宗 2年 이전에 들어와 있었음을 나타내며 이후 重刊된 사실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후 世祖 2年 8月, 典醫監 提調 左參贊姜孟卿이 啓하기를 지금 方書가 稀少하여 習讀官 15人이 함께 몇책을 보게 되므로 精讀과 溫釋을 할 수 없으나 內醫院에 소장 되어 있는 여러 方書 및 三醫司의 醫書를 習讀廳에 量給하고 또 唐本方書들은 많이 얻기가 어려우니 본국에서 刊行한 方書들을 所在邑으로 印送하여 習讀廳에 收藏케 하였다<sup>8)</sup> 고 하는데 그중에 「加減十三方」이라는 중국의 救急方書가 포함되어 있어 이는 이들이 수입된 후 國內에서 刊行된 사실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明 徐文中 撰의 本書는 成宗 9年 2月에 禮曹가 醫女勸課의 條를 啓하는 중에 열거되어 있고<sup>9)</sup> 成宗 25年 3月 (1494)에는 內醫院에서 刊板하여 30여本을 印出하여 醫員 宋欽등에게 1부씩 頒賜하였으며<sup>10)</sup> 同年 9月에는 本書가 諸藥種의 隨證加減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救急에 切하다 하여 坡平府院君, 三政丞, 六承旨, 注書, 史官들에게도 賜하게 하였다<sup>11)</sup> 고 한 것으로 보아 수입이후 本書의 수요가 지속되어 重刊을 통해 그 이용이 빈번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三木榮은 「朝鮮醫書誌」에서 「拯急遺方加減十三方」(二卷)을 소개하고 있어 앞서 언급한 世宗 2年 本國刊行的 「加減十三方」도 이 「拯急遺方」에 포함된 것일

7) 端宗實錄, 二年 二月.

「先是咸吉道節制使啓本道無業醫者又無方書故人多…天札…請送方書及其道不產鄉藥與店藥下禮曹 議之…和劑方拯急遺方鄉藥集成方各印五件…」

8) 世祖實錄, 二年 八月.

「…典醫監提調左參贊姜孟卿啓曰…今方書稀少習讀官十五人共看數册讀既不能專精又不能以時溫釋請內醫院印送諸方書及三醫司醫書量給習讀廳唐本方書未易多得本國刊行…加減十三方…等册令在呂院宜印送葦之本廳從之」

9) 成宗實錄, 九年 二月.

「禮曹啓醫女勸課條…醫女誦讀書…加減十三方…」

10) 成宗實錄, 二十五年 三月.

「上親書加減十三方刊板于內印三十餘本賜醫員宋欽等各一本…」

11) 成宗實錄, 二十五年 九月.

「丁未下御書加減十三方于政院仍…諸藥種隨證加減詳悉備具切於救急其賜坡平府院君三政丞六承旨注書史官」

지도 모른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한편 成宗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의 醫書 이외에 中國의 醫方書들에 대한 翻刻도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成宗 2年 3月, 3年 3月의 양차에 걸쳐 醫員取才時에 채택된 中國醫方書 및 「經國大典」卷三의 醫科取才講書<sup>12)</sup>中 많은 方書들이 교재로서 널리 이용되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되므로 당시 그 方書들이 많이 刊行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成宗 15년에는 明의 正統年間に 趙季敷가 撰한 「救急易方」이 평양에서 刊行된바있다.<sup>13)</sup>는 사실은 本書가 적어도 世宗祖 무렵에 수입되어 國內에서 重刊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朝鮮에 傳來된 中國의 救急醫書들을 살펴본 바 <李朝實錄>, <高麗史>등 史料上 확인 가능한 것과 朝鮮의 醫書에 引用된 것, 그리고 「朝鮮醫書誌」, 「古鮮冊譜」 등에 나타난 것들을 추려보면 다음의 <表 1>과 같다.

<表 1> 國內에 傳來된 中國救急醫書

史料에 기록된 것	諸醫書에引用된것	朝鮮醫書誌	古鮮冊譜
肘 後 方	千 金 方	拯 急 遺 方	拯 急 遺 方
千 金 翼 方	海 上 仙 方	加 減 十 三 方	救 急 方
千 金 方	葛 氏 肘 後 方	救 急 易 方	(救 急 仙 方)
胎 產 救 急 方	救 急 仙 方		
海 上 仙 方	備 急 方		
救 急 仙 方	葛 氏 備 急 方		
拯 急 遺 方	經 驗 救 急 方		
加 減 十 三 方	備 急 大 典 良 方		
救 急 易 方			

12) 三木榮, 朝鮮醫書誌, p.180,183 참조.

13) 經國大典, 卷三, 禮典 取才장조.

14)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述圖書刊行會, 1973. p.199.

諸醫書에 引用된 것은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診解救急方」, 「廣濟秘笈」등 일반 醫書 및 救急醫書들의 引用書目에서 간추린 것이며 「經驗救急方」은 앞서 언급한 「拯急遺方」의 下卷임을 朝鮮醫書誌에서 밝히고 있다. 이중 중복된 書名을 제외하면 결국 朝鮮에 傳來된 中國 救急醫書는 다음과 같이 編纂 시대별로 요약할 수 있다.

〈表 2〉 傳來된 中國 救急醫書의 編纂時期別 구분

晉	唐	宋	明
肘後方	千金方 海上仙方	救急仙方	拯急遺方 加減十三方 救急易方 經驗救急方

이외에 編纂時期가 확인되지 않은 「胎產救急方」, 「備急大典良方」, 「備急方」등 모두 약10여종 정도가 傳來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醫書들이 대개 朝鮮前期에 해당되는데 비해 朝鮮後期에 가서는 民間의 救急醫方에 있어서 실용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民間의 經驗方들을 채집하게 되었는데, 이는 점차 實學思想의 영향으로 醫學분야에서도 高麗時代 이후 부터 일어난 자주적 經驗醫方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中國醫方書의 引用보다는 실용에 적합한 우리 固有의 經驗方들을 적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朝鮮後期の 中國 救急醫書의 수입에 관한 사실은 별로 확인되지 않는다.

아래 〈表 3〉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傳來 救急醫書의 國內刊行을 확인할 수 있는 史料上的 기록과 國內의 諸書目에 수록된 것, 故事撮要의 八道册板目錄에 기록된 것을 綜合하여 이들의 重刊 사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表 3〉 國內刊行 中國 救急醫書

區 分	書 名	重刊年月, 所藏處	備 考
史料上 기록된것	拯 急 遺 方	端宗 2年 2月	
	加 減 十 三 方	世宗 2年 8月	
	救 急 易 方	成宗 15年	
	加 減 十 三 方	成宗 25年 3月	
國內 著書目에 수록된것	拯 急 遺 方	國立中央圖書館：甲辰字本	마이크로필름  表紙書名：經驗救急方
	救 急 易 方	연세대도서관：木板本	
	醫家秘傳隨身備 急加減十三方	濶松文庫：木板本	
	拯 急 遺 方	濶松文庫：木板本	
人道册板 目錄	肘 后 神 方	藏書閣：寫本	
	拯 急 遺 方		慶州板

國內에서 刊行된 中國의 救急醫書는 주로 「拯急遺方」, 「加減十三方」, 「救急易方」 등 3종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이 中 世宗 2年 8月の 「加減十三方」은 校書館에서 印出한 中央官板이며 이후 成宗 25年에도 重刊되는 등 널리 이용된 救急方書로 여겨진다.

### Ⅲ. 朝鮮時代 救急醫書의 編纂 및 刊行史

朝鮮 전반에 걸쳐 약 10여종의 救急醫書가 刊行되어 왔으나, 현존하는 우리나라 最古의 醫書로서 意義를 갖는 「鄉藥救急方」이 이미 高麗 大藏都監에서 刊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高麗때 刊行된 本書 1권이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판본이 적어 구하기가 어려워 朝鮮 太宗 17年(1417)에 義興에서 重刊하고자 하였는데 義興監 崔自河의 노력으로 마침내 鍍梓하게 되어 本 方書가 널리 배포될 수 있었음<sup>15)</sup>을 尹祥의 跋에서 밝히고 있다.

당시의 義興縣 重刊본이 현재 日本 宮内廳書陵部에 일부가 秘藏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大藏都監의 原刊본은 이미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撰者에 대한 기록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刊記부분에 刻手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日本 소장본이 重刊本임이 확실하며, 世宗 9年 9月에는 前判 羅州牧 黃子厚가 「鄉藥救急方」을 印出하여 外方에 반포하여 救生의 길을 넓히기를 청하니 忠淸道에 보내어 刊行하게 하였다<sup>16)</sup>고 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本書의 重刊이 계속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國內에도 傳本은 없으며 오로지 國立中央圖書館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木板本 1권이 소장되어 있는데 아마도 日本 소장본을 影印한 것으로 생각된다.

本書의 書名에 보이는 ‘鄉藥’이란 종래의 中國에서 수입되던 약재를 唐材라고 칭한데 대해 國內에서 産出되는 自國産 藥材라는 뜻으로, 本書의 전개를 살펴보면 각종 질병아래 救急鄉藥方을 引用하고 있으며 方中鄉藥目草部란 권말부록에는 鄉藥 白八十여종에 대해 鄉藥名, 俗名이 있는 경우에는 그 俗名, 藥의 맛, 藥의 성질과 採取時期 및 方法등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다.

本書의 編纂은 결국 종래의 唐材를 우리 鄉藥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또 高麗中基 이후 우리의 醫藥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 기초가

15) 鄉藥救急方, 跋.

「…昔大藏都監刊行是書歲久板朽舊本罕見今義興監都崔自河思欲重刊以廣其惠乃出秘藏善本告諸監司李公之剛而監司卽命鍍梓…」

16) 世宗實錄, 九年 九月.

「前判羅州牧事黃子厚啓鄉藥救急方印出分於外方以廣救生之路遂命送于忠淸道刊行」.



되었을 뿐 아니라 醫書로서는 유일한 高麗時代의 것이므로 高麗醫學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는 길은 오직 本書를 접하는데 있다는 것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救急方」의 경우 정확한 編纂時期는 알 수 없으나 世祖十二年 六月에 八道에 救急方 各 2卷을 下賜하였음<sup>17)</sup>과 成宗 十年 二月의 기록에 世祖朝에 救急方을 撰集하였으나 그 中國産 藥材를 백성이 쉽게 얻지 못하므로 鄕藥醫方을 撰하여 널리 民間에 배포할 수 있기를 청한다<sup>18)</sup>라고 한 것으로 보아 本書는 世祖命撰임을 알 수 있다.

木板本 1冊이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으며 四周單邊, 8行 17字, 上下內向黑魚尾 등의 版式이 당시의 版本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한편 本書는 「故事撮要」 冊板目錄중에 淸州, 平壤版의 기록<sup>19)</sup>이 있는데 이는 世祖 12년에 八道에 내려준 「救急方」을 版下로 하여 重刊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宣祖 三十四年(1601)에는 許浚이 本書를 諺解하여 改撰한 사실<sup>20)</sup>이 같은 해 刊行된 「諺解痘瘡集要」의 跋文에 적혀져 있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후에 언급될 「諺解救急方」이다.

「經國大典」의 醫科試驗講書中에 本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sup>21)</sup>로 보아 당시 중요한 醫學의 기본서였음을 알 수 있고, 1790年 刊行의 「廣濟秘笈」에도 引用<sup>22)</sup>된 것을 보아 朝鮮後期까지 애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古鮮冊譜」에서는 同一 書名의 두가지 「救急方」을 수록하고 있는데,

17) 世祖實錄, 十二年 六月.

「賜八道救急方各二件」.

18) 成宗實錄, 十年 二月.

「兵曹參判金順命啓曰世祖朝嘗撰救急方其藥材出於中國者民不易得請撰鄕藥醫方廣布民間…」

19) 故事撮要, 冊板目錄 참조

20) 諺解痘瘡集要, 跋文(註46참조)

21) 經國大典, 卷三, 禮典 取才 참조

22) 廣濟秘笈, 引用書目

하나는 冊板「救急方」으로서 本書의 重刊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며 또 하나의 明本「救急方」은 中國 宋나라 때의 「救急仙方」의 通名임<sup>23)</sup>을 소개하고 있어 우리 固有의 「救急方」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더이상의 설명이 없어 冊板「救急方」도 明本「救急方」의 重刊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救急簡易方」은 表紙書名이지만 本書가 諺解本이므로 「救急簡易方諺解」 또 實錄에서는 「新撰救急簡易方」, 「新撰救急方」등으로 기록하고 있어 여러 書名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新撰」의 의미는 世祖 命撰으로 알려진 「救急方」에 대한 명칭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는 本文을 대조해 본즉 「中氣」, 「卒死」 등등 여러 부분에서 양책이 同一한 文章을 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成宗 20年 5월에 內醫院 提調 尹壕등이 「新撰救急簡易方」 9卷을 진상하였으며 諸道監司로 하여금 開刊印出케 하였다<sup>24)</sup>고 하고 同年 9월에도 諸道觀察使에게 下書하여 「救急簡易方」을 곧 開刊印出하여 널리 반포토록 하였다<sup>25)</sup>는 기록들이 傳하는 것으로 미루어 本書는 成宗 20年(1489) 尹壕등이 編纂하여 內醫院에서 刊行한 뒤 地方板도 많이 印出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本書가 民間에 널리 배포되어 日常救急醫書로써 두루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故事撮要」 冊板目錄에도 本書의 江原道 原州板, 全羅道 全州, 南原板, 慶尚道 陝川, 昆陽등지의 板本이 있음<sup>26)</sup>을 볼 때 그 수요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本書의 版心に 사용된 版心題가 주로 「簡易方」으로 略하여 사용된 것을 볼때 海州板의 「簡易方」이나 「古鮮冊譜」에 수록된 「簡易方」도 同書인 것으로

23) 古鮮冊譜, p. 261.

24) 成宗實錄, 二十年 五月.

「內醫院提調領敦寧尹壕等進新撰救急簡易方九卷命諸道監司開刊印行」

25) 成宗實錄, 二十年 九月.

「不書諸道觀察使日今送救急簡易方及時開刊印出廣布」

26) 故事撮要, 冊板目錄 참조.

간주된다.

그런데 本書의 目錄에 의하면 그 구성에 있어서 모두 8卷 127部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 앞선 實錄의 기록에서는 全9卷이라 하였으므로 卷數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目錄을 別本으로 취급하였을 가능성 등 학자들이 분분한 說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정확한 것은 확인할 수가 없다.

本書는 현재 卷一이 서울대학교 일사문고, 卷二는 安東의 金永倬氏, 卷三은 東國大, 卷六은 一山文庫, 卷七은 松文庫 소장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卷四, 卷五, 卷八이, 그리고 만약 실제로 九卷으로 成書되었다면 卷九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序文에서 尹鑿등으로 하여금 古方의 중요한 부분을 수집토록 하여 成書되었음<sup>27)</sup>을 밝혀 그 배경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히 부녀자나 아동이라도 직접 이 冊을 보고 치료술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sup>28)</sup> 하니 얼마나 民間의 편의를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方書인가를 짐작케 한다.

「救急易解方」은 燕山君 4년에 內醫院 尹弼商, 洪貴達, 鄭眉壽, 金興壽등이 命을 받아 本書를 편성하고 따로 이것을 諺解하였다<sup>29)</sup>고 한 기록과 이듬해인 5년 3월에 尹弼商등이 本書 1冊을 撰하고 諺解하여 校書館에서 刊行頒布하였다<sup>30)</sup>는 사실에서 1498年 王命에 따라 편성된 후 1499년에 諺解를 붙여 頒布된 中央官版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成書의 배경은 洪貴達의 序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7) 救急簡易方, 序文.

「…命領敎宰府事臣尹鑿西河君臣任元楮工曹參判臣朴安性漢城府左尹臣權健賢臣琮率其戚屬按括古方病取…」

28) 上揭書, 序文.

「…上御極恩深字人思欲廣選約取以便民生醫病之用乃…雖婦女兒童開卷檢方治療之術了然於…」

29) 救急易解方, 序文.

「…內醫院都提調臣尹弼商提調臣洪貴達副提調臣鄭眉壽及內醫臣金興壽撰諸方中病之最急藥之易得者編成別方韻以諺字以進既乃賜名曰救急易解方…今且印而進之廣行流布…」

30) 上揭書, 跋文.

「…弘治十一年秋命內醫院撰易解方且譯以諺字令校書館印之梓廣布…」

한편 本書의 編纂이후 重刊에 대해서는 嘉靖癸未昆陽刊本の 日本 京都大學 富士川本이 있음<sup>31)</sup>과 刊記에 보이는 刻手僧陵祖등의 기록<sup>32)</sup>등으로 미루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原刊本은 전하지 않고 日本 京都大 富士川本과 國內 高麗代 華山 文庫本이 있는 것으로 書誌調査 결과 확인되었으나 京都大 소장본에는 卷末에 中宗 十八年(1523)에 해당하는 嘉靖癸未의 刊記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華山文庫本에는 刊記가 없다.<sup>33)</sup>

또 一山文庫에 소장된 筆寫本이 있으나 華山文庫本과 마찬가지로 實錄에는 諺解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들에는 諺解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諺解本이 별도로 刊行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며 弘治 十一年(1498)에 諺解가 별도로 이루어졌음은 앞의 實錄의 기록뿐 아니라 本書의 跋文에서도 밝히고 있다.

本書가 「鄉藥集成方」이나 「醫方類聚」등의 醫書가 너무 浩瀚하고 「救急方」은 지나치게 간단하므로 諸方書를 참고로 요약하여 하나의 救急醫書를 만든 것<sup>34)</sup>이라 하여 그 編纂 배경을 전하고 있으며 目次에서는 中風을 비롯 70여 項目을 나열하고 있고 각 項目에 대해서는 그에 적용되는 藥方名, 그 용량 및 용법을 적고 있다.

「海東文獻總錄」에도 위와 같은 本書의 編成 경위에 대한 解除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村家救急方」은 中宗 33年 7월에 金安國이 撰한 것<sup>35)</sup>으로 窮村民들의 疾病治

31) 朝鮮醫書誌, p. 63.

尹炳泰, 韓國書誌年表,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2, p. 47.

32) 救急易解方, 刊記 참조.

33) 韓國醫學大系: 1.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 2.

34) 救急易解方, 跋文.

「...其書集成類聚救急諸方是已然或病其浩穰或傷於簡易或只取鄉土所產俱不苦此書廣選而約取之略而不失其要開卷...」

35) 朝鮮醫書誌, p. 72.

尹炳泰, 上揭書, p. 50.

療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方書中 民間이 손쉽게 得할 수 있는 藥材과 父老들의 聞見에서 효험이 있는 것을 채집하여 一卷으로 編纂하였다<sup>36)</sup>고 함으로써 그 編纂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嘉靖戊戌에 湖南 南原에서 讎校, 鈔梓하여 널리 배포하였다<sup>37)</sup>고 하여 本書는 朝鮮 中宗 33年(1538)에 南原에서 처음으로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宣祖 5年 壬申 8月에는 晉州에서 重刊되었다.<sup>38)</sup>

本書의 內容은 卷首에 「本草之部」를 두어 本文中에 있는 藥材 200여종의 鄉名을 게재하고 있고 本文은 大方科, 婦人門, 小兒門으로 大別하여 大方科에서는 약 78종의 성인질병에 대한 치료법, 婦人門, 小兒門에서는 각각 24종의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卷末에 溺水를 비롯한 6개항의 救急治療法을 부가하고 있는데 「海東文獻總錄」에서 本書가 門三 目百三十二로 구성되어 있다<sup>39)</sup>고 한 것으로 미루어 이는 卷末의 6개항의 治法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상으로 보아 本書는 窮村民을 대상으로 그 질병치료에 이용하기 위해 編纂한 단순한 治療書에 지나지 않지만 그중에는 우리 固有의 治法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卷首의 本草鄉名은 語學研究上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中宗期의 朝鮮固有醫書로서의 그 가치는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유사한 名稱의 「村家救急簡易方」이라는 冊이 「故事撮要」 冊板目錄 南原版 맨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어 있을뿐 아니라 「古鮮冊譜」에도 발견되는데 三木榮은 두책이 별개의 것으로서 「村家救急簡易方」은 尹濠등이 撰한 「救急簡易方」

36) 朝鮮醫書誌, p. 73. 「村家救急方」, 識.

「…非窮村之民所能得者…於是…只取其民間所易得者, 兼採其出於父老之聞見而有効者, 編纂一卷, 曰「村家救急方」」

37) 上揭書, p. 73. 「村家救急方」, 識.

「…嘉靖戊戌春, 被召還朝, 同年夏, 承湖南之命, 入界信宿, 而到南原首, 以足編付通判李君喬平, 使之更加讎校, 鈔諸梓以廣其布云, 嘉靖戊戌夏六月, 聞韶金正國國弼識」

38) 上揭書, p. 72.

39) 海東文獻總錄, 「村家救急方」, 해제.

「…村家救急方其爲門三大方科婦人門小兒門其爲目百三十二…」

일 것으로 추정<sup>40)</sup>하고 있는 반면 前問恭作은 「村家救急方」을 簡約한 것으로 간주<sup>41)</sup>하고 있는데 어느 說이 타당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前問恭作은 「朝鮮醫書誌」에서 자신의 소장본중 撰者 및 年代未詳의 朝鮮後期本으로서, 「村家救急方」과 同名이지만 이보다 뒤에 刊行된 異本으로 「村家救急」寫本 1冊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각종 일상질환 90여종에 대해 치료법을 간이하게 기술한 것<sup>42)</sup>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金致雨는 자신의 論文<sup>43)</sup>에서 宣祖 1年の 乙亥字本 「村家救急方」과 宣祖 18年の 木版本 「村家救急」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들이 同一書라면 「村家救急方」은 앞서 밝힌 中宗 33年の 초간본외에 宣祖 1年(1568)의 초간木版本, 宣祖 5年(1572)의 乙亥字本, 宣祖 18年(1585)의 木板本 그리고 年代未詳의 寫本등으로 계속 改版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村急良方」은 本文 4枚, 跋文 1張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治腫秘方」 및 「救急良方」이 錦山에서 開刊되었으며 「村急良方」은 內醫院에서 撰하였으나 至簡하고 至効하여 이를 「治腫方」에 附刊하였다<sup>44)</sup>고 한 記錄에서, 安璋가 당시 湖南 觀察使일때 질병이 생겼으나 良醫를 얻지 못한 것을 슬퍼하여 이에 內醫院의 諸公에게 諸方을 강구토록 하여 方藥을 기록하였으나 本 方書가 지극히 簡要하고 神効하여 감히 私秘치 못하였기에 「治腫方」뒤에 붙여 刊行한다<sup>45)</sup>라고 한데서 그 편찬경위 및 하나의 독립된 醫書가 아닌 「治腫秘方」의 卷末에 부록으로 刊行된

40) 朝鮮醫書誌, p. 74.

41) 古鮮冊譜, p. 1224.

42) 朝鮮醫書誌, p. 126.

43) 金致雨, 「故事撰要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72, p. 31.

44) 尹炳泰, 上揭書, p. 54.

朝鮮醫書誌, p. 79, 「救急良方」.

45) 救急良方, 跋.

「右救急良方乃今左相俾內院諸公講求諸方而撰出者也以余出按湖南慮其遇疾而不得良醫也因證考方因方命藥至簡而要至効而神若和扁之在傍矣不敢私秘並附干治腫方之左欲與人共之時己未孟春竹溪安璋跋」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本書는 日本圖書寮에 소장되어 있으며 國內에는 金斗鍾이 이를 영인한 것이 藏書閣에 전하고 있다.

全 5枚로 된 本書는 응급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 각각 그 처방과 복용방법을 기재해 두고 있는데 짧은 지면에도 주요 응급질병에 대한 方藥을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다.

「諺解救急方」에 대해서는 「諺解痘瘡集要」의 宣祖 34年 8월에 쓴 許浚의 跋文에서 壬辰倭亂前에 「救急方」, 「胎產集」, 「瘡疹集」등이 있었으나 亂後에 모두 없어지고 봄에 王이 許浚에게 命하여 諺解토록 하여 이때 이루어짐<sup>46)</sup>을 밝히고 있으며 諸穴論 마지막 부분에 萬曆三十五年 六月 內醫院開刊 傳書<sup>47)</sup>라 한 것으로 미루어 本書는 許浚이 이미 宣祖 34年(1601)에 奉敎改撰, 諺解한 것을 宣祖 40年(1607)에 內醫院에서 刊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本書의 原本은 현재 日本 蓬左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 抄本이 한독의약박물관에 전하고 있고, 金斗鍾박사는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引用書目<sup>48)</sup>中에는 「葛氏備急方」, 「備急大典急方」, 「肘後方」, 「千金方」, 「經驗救急方」등 2장에서 언급한 中國의 救急醫書들이 다수 발견될 뿐 아니라 「鄉藥救急方」과 같은 우리나라 固有의 救急醫書도 열거되어 있어 이들을 두루 引用한 方書임을 알 수 있다.

本書는 上·下 2卷의 目次에 각각 일상 應急을 요하는 질병을 수록하고 있어 應急治法에 관한 救急書임을 알 수 있고 「海東文獻總錄」에서는 문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도 누구든지 그 治法을 알 수 있도록 번역하였음<sup>49)</sup>을 밝히고 있어 本書

46) 諺解痘瘡集要, 跋文

「…辛丑之春下教干臣曰平時有胎產集瘡疹救急方刊行于世亂後皆無矣…子欲親覽焉耳出內藏古今醫書令其檢討以資撰集…命臣諺解…時辛丑八月日御醫正憲大夫知中樞府事臣許浚頓首稽首謹識」

47) 諺解救急方, 諸穴論 참조.

48) 金信根, 韓醫藥書故,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9, p.168.

49) 海東文獻總錄, 「諺解救急方」해제.

「…翻譯雖未知文字者亦皆可考而治之…」

역시 民間이 일상응급 치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한 編纂의도를 읽을 수 있다.

『廣濟秘笈』은 당시 함경도 觀察使였던 李秉模가 그곳 백성들이 左右로 바다와 大嶺에 접한 까닭에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巫俗은 믿으면서 藥은 믿지 않는 풍속 때문에 사망자가 적지 않음을 알고 李景華를 소개받아 3개월에 걸쳐 四編으로 이루었다<sup>50)</sup>고 전하는데 李秉模, 李景華가 聖上 14年 庚戌年에 각각 序, 跋을 쓰고 李秉模가 祿俸을 털어 널리 배포하였다<sup>51)</sup>고 하므로 本書는 正祖 14年(1790)에 編纂되어 이어서 같은해 그 刊行과 頒布가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本書는 1卷에서 救急, 2卷에서는 雜病, 3卷에서 婦人門과 小兒門, 마지막 4卷에서 鄉藥單方治驗 등 救急 외에도 다른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醫書로 분류되기도 하나, 24卷의 救急외의 영역도 그 영역의 治法을 다루고 있고,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本書의 경우 미처 제대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려는 의도에서 그 成書의 계기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救急醫書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跋文에서도 백성이 藥을 잘 알지 못하고 針石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救濟之方을 編輯하여 廣布할 계획임<sup>52)</sup>을 밝힌 것으로 보아 本書는 분명 일상응급이 필요한 질병에 대한 治法을 다룬 救急醫書이다.

특히 本書는 序, 跋, 凡例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眞濟衆之寶筏壽民之秘笈也…」<sup>53)</sup>, 「…是書也奚但壽北之民將見八路蒼生之同躋壽域…」<sup>54)</sup>, 「…病者雖千

50) 李景華, 廣濟秘笈, 序

「…歲己酉余出按關北其地右海左嶺嵐瘴交觸民多疾病其俗巫而不信藥口事祈禳無救於死亡甚可哀也…君圖巖贈李景華詩曰…余遂紹介而…三閱月而成書凡四編…」

51) 上揭書, 序.

「…余乃捐俸助工以付制副廣布…聖上十四年庚戌仲夏下游德水李秉模序」

52) 李景華, 上揭書, 跋.

「…歲庚戌諍修李公觀察北關適值春飢減價糶毀盡心接濟之暇更念北俗貧質藥不知澆勸針不解砭石天枉札沓往往有之閱而憐之召致余子舍要輯救濟之方以爲廣布計…」

53) 上揭書, 序.

54) 上揭書, 序.



百其形治法無所不備庶幾簡而約而不至於忍…」<sup>55)</sup>, 「窮鄉僻邑無藥救急考閱綱日本草及保元諸方以人家尋常易得之料四十九種書名診釋主治服法井井畢俱使村人鄙夫臨病判用以爲備急之一助云」<sup>56)</sup>, 「凡醫書編秩浩繁方文汚漫非平日熟讀者臨急檢方多有未及之歎孫氏千金方序云方才檢得病已不救徵其言分類立方易於考閱云」<sup>57)</sup> 등의 여러 표현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당시 藥을 잘 모를뿐만 아니라 적절한 처방이 있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들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 얼마나 지극 정성의 마음으로 本書를 編纂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특히 凡例의 표현에서는 方文을 찾기 쉽도록 分類하고 藥材名을 國文으로 註釋하는 등 民間의 편의를 위한 정성들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성을 기울였음도 과연 실제로 얼마나 民間에게 실용적으로 사용이 되고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引據諸書에서 열거하고 있는 引用書目中 救急과 관련된 冊들을 살펴보면 「肘後方」, 「千金方」, 「海上方」, 「備急方」, 「救急方」등을 추려 볼 수 있는데 이중 「救急方」만이 世祖命撰의 國內醫書로서 현재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로 2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唐代之 中國 救急醫書이다.

本書는 前閔恭作的 「古鮮冊普」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同一 지면에 또한 「弘濟秘笈」이라는 명칭의 冊도 소개되고 있으나 이는 書名中の 「弘」字가 「廣」字의 잘못된 기록이라고 적고 있어서 결국 同一書로 간주된다. 역대 書目中 「鑿板考」에도 수록되어 있는데<sup>58)</sup> 총 7종의 醫書가운데 本書만이 유일한 國內醫書이자 救急醫書로서 수록되어 있다.

本書의 소장본들은 현재 奎章閣 외에 國立中央圖書館, 연세대 도서관, 潤松文庫, 一山文庫 등에 木板本이, 그리고 藏書閣에는 筆寫本이 각각 전하고 있다.

55) 上揭書, 跋.

56) 上揭書, 凡例.

57) 上揭書, 凡例.

58) 鑿板考, 醫家類 참조.

刊行年代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救急醫書로서 隆熙 3年刊 「家庭救急方」을 들 수 있다. 隆熙 3年 一月에 朴容南이 纂述하고 金相健이 校正한 「家庭救急方」이 서울의 共愛堂에서 刊行된 것<sup>59)</sup>으로 傳하고 있는 本書는 1909年 朴容南 著書로서 東西醫藥方中에서 救急에 필요한 良方을 채집하여 수록해 놓은 것으로 本書는 현재 藏書閣과 一山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編者와 年代를 알 수 없는 救急醫書로서 「博施良方」과 「救急新書」를 들 수 있다. 全 6張으로만 된 木活字本인 「博施良方」은 현재 한독의약박물관과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소장되어 있으며 目錄이 따로 없으나 「救五絶, 安胎催生藥方, 異傳不出天花經驗奇方, 經驗栖疾奇方, 續附經驗救急良方, 誤傷救急, 一切中毒救急良方, 預防痰病要訣」<sup>60)</sup>의 순서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 이 역시 일상 救急醫書로 編纂된 것임을 알 수 있다.

「救急新書」는 20卷 5冊의 寫本으로서 古今의 中國醫書로부터 引用한 것인데, 그 內容은 각종 病名下에 효능이 있는 藥劑 및 그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池錫永의 藏書印이 있으나 실제 撰者가 本人인지는 확실하지 않다.<sup>61)</sup>

끝으로, 독립된 救急醫書는 아니지만 救急의 治法을 다룬 것으로 「故事撮要」와 「增補山林經濟」의 救急篇을 들 수 있다.

英祖 19年(1743)에 5卷으로 改修한 「故事撮要」는 卷末에 「雜用俗方」이라는 題下에 救急方을 포함한 諸方에 대하여 雜病經驗方 및 日用諸般俗方등을 기재하고 있다. 本書는 서울대 奎章閣에 여러 異本이 소장되어 있다.

洪萬選의 「山林經濟」를 英祖 42年(1766)에 增補한 「增補山林經濟」 卷14에 「救急編」을 두고 있는데 일상응급 질병 137가지에 대해 그 治方을 서술하고 있다.

肅宗 41年(1715)의 「山林經濟」에서는 卷三에서 救急을 다루었으며 引用書目

59) 尹炳泰, 上揭書, p. 159.

60) 博施良方, 本文 참조.

61) 朝鮮醫書誌, p. 153.

中에는 「許邊救急方」이 있는데 이는 1607년의 「診解救急方」의 引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상에서 朝鮮時代に 編纂, 刊行된 救急書들을 살펴보았다. 아래 <表 4>는 編纂 및 刊行年度 順으로 정리하고 그 重刊된 기록이 있는 것을 포함시켜 제시하였다.

<表 4> 朝鮮時代 救急書의 年代順

書 名	編纂 및 刊行年度	重 刊 年 度
鄉 藥 救 急 方	高麗	太宗 17年 (1417) 世宗 9年 (1427)
救 急 方	世祖	世祖 12年 (1466)
救 急 簡 易 方	成宗 20年 (1489)	成宗 20年 9月 (1489)
救 急 易 解 方	燕山君 4年 (1498) 完成 燕山君 5年 (1499) 刊行	中宗 18年 (1523)
村 家 救 急 方	中宗 33年 (1538)	宣祖 1年 (1568) 宣祖 5年 (1572) 宣祖 18年 (1585)
救 急 良 方	明宗 14年 (1559)	
診 解 救 急 方	宣祖 34年 (1601) 完成 宣祖 40年 (1607) 刊行	
故 事 撮 要 (救 急 方)	英祖 19年 (1743)	
增 補 山 林 經 濟 - 救 急 編 -	英祖 42年 (1766)	
廣 濟 秘 笈	正祖 14年 (1790)	
家 庭 救 急 方	隆熙 3年 (1909)	
博 施 良 方	未 詳	
救 急 新 書	未 詳	

## IV. 國內外 諸書目上 救急醫書의 書誌的 分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歷代 書目으로서 《海東文獻總錄》，《縷板考》，우리나라 古書籍에 대한 日人들의 解除書인 《朝鮮醫書誌》，《古鮮冊譜》등에 수록된 救急醫書들을 조사하고 解除를 살펴봄으로써 그 체계를 확인하며 《故事撮要》 및 그 「冊板目錄」을 통하여 朝鮮 救急醫書의 刊行에 대한 내용을 보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國內 각 圖書館에 산재해있는 救急醫書들을 書誌調査를 통하여 종합하여 그 版本 및 소장처를 밝힘으로써 現傳하는 朝鮮 救急書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表 5〉 歷代書目の 救急醫書

海東文獻總錄		縷板考	
醫藥類	救急易解方 村家救急方 診解救急方	醫家類	廣濟秘笈

《海東文獻總錄》은 醫藥類에서 總 29종의 朝鮮 醫藥書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 救急을 다룬 것은 「救急易解方」, 「村家救急方」, 「診解救急方」등 3종인데 모두 診解本인 것이 공통점이다.

《縷板考》의 醫家類에서는 總 7종의 醫書를 수록하고 있지만 「補註黃帝素問」등 6종이 모두 中國醫書인데 비해 「廣濟秘笈」만 유일한 國內醫書이자 救急書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Ⅲ장에서 언급한바, 《古鮮冊譜》의 「弘濟秘笈」은 「廣濟秘笈」의 誤記이며 「村家救急簡易方」은 三木榮과 前間恭作이 각각 두책은 별개의 것으로 「救急簡易方」을 지칭하는 것, 「村家救急方」을 簡約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

정확한 지는 더이상의 자료가 없어 알 수가 없다.

〈表 6〉 日本 解除書上의 救急醫書

區分	朝鮮醫書誌	古鮮冊譜	日本所在韓國古文獻目錄
國內 救急 醫書	鄉藥救急方	廣濟秘笈(弘濟秘笈)	廣濟秘笈
	救急方	救急方	診解救急方
	新纂救急簡易方	救急簡易方	
	救急易解方	村家救急方	
	村家救急方	村家救急簡易方	
	救急良方	簡易方	
	診解救急方		
	村家救急(後出異本)		
	廣濟秘方		
	救急新方		
博施良方			
故事撮要			
增補山林經濟			
中國 救急 醫書	肘後方	救急方	
	拯急遺方	拯急遺方	
	加減十三方		
	救急易方		

한편 國內醫書와 中國醫書에 각각의 「救急方」이 보이는데 前者는 世祖命撰의 朝鮮救急書이고 後者는 宋代의 것으로 「救急仙方」으로 알려진 것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古鮮冊譜〉의 「簡易方」은 冊板目錄의 海州板에도 수록된 것으로서 「救急簡易方」의 「救急」을 略한 同一書로 간주된다.

〈表 7〉 「故事撮要」 冊板目錄의 救急醫書

區 分		國 內 救 急 醫 書	中 國 救 急 醫 書
地 方 板	清 州	救 急 方	
	海 州	簡 易 方	
	原 州	救 急 簡 易 方	
	全 州	救 急 簡 易 方	
	南 原	救 急 簡 易 方	
		村 家 救 急 方 村 家 救 急 簡 易 方	
	陝 川	救 急 簡 易 方	
	慶 州		拯 急 遺 方
	晉 州	村 家 救 急 方	
	昆 陽	救 急 簡 易 方	
平 壤	救 急 方		
中 央 官 板		新 撰 救 急 簡 易 方 救 急 易 解 方	加 減 十 三 方
私 家 板		鄉 藥 救 急 方 村 家 救 急 方	

八道 각 地方에서 刊行된 救急書의 重刊은 「救急方」, 「救急簡易方」 그리고 「村家救急方」등 3종에 限하고 있어 이들의 수요가 相當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鑄字所나 校書館 등에서 印出하여 官署 및 官員들에게 頒賜하였던 中央官板으로는, 成宗 20年의 「新撰救急簡易方」과 燕山君 5年의 「救急易解方」이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中國 救急書로 유일한 地方板인 慶州의 「拯急遺方」이나

成宗 25年の「加減十三方」이 中央官板으로 刊行되었음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表 8〉 國內 諸古書目錄上의 現傳 救急醫書

書名	編著者	刊行年代	版本	卷冊	所藏處
鄉藥救急方	未詳	未詳	마이크로필름	1卷	國立中央圖書館
救急方	世祖命撰	未詳	木板本	1冊	奎章閣, 一山文庫
救急簡易方	尹 壕	成宗20(1489)	乙亥字복각판	1卷1冊	奎章閣, 誠庵文庫 清芬室書目
救急易解方	尹弼商	燕山君4 (1499)	活字本(乙亥字) 筆寫本	1卷	華山文庫 一山文庫
村家救急方	金正國	中宗33(1538)	木板本	1冊	誠庵文庫, 一山文庫
救急良方	內醫院刊行	明宗14(1559)	筆寫本	5張	藏書閣
諺解救急方	許 逵	宣祖40(1607)	乙亥字本 筆寫本	2卷 1卷	清芬室書目 一山文庫, 金斗鍾
故事撮要 (救急方)	魚叔權	英祖19(1743)	活字本	5卷5冊	奎章閣 등
增補山林經濟 (救急編)	柳重臨	英祖42(1766)	筆寫本		奎章閣 등
廣濟秘笈	李景華	正祖14(1790)	木板本 寫本	4卷4冊 4卷4冊	奎章閣, 國立中央圖書館 연세대, 潤松文庫, 一山文庫, 藏書閣
家庭救急方	朴容南	隆熙 3(1909)	新鉛印本	1冊	一山文庫, 고려대
救急新書	池錫永(?)	未詳	寫本	20卷5冊	
博施良方	未詳	未詳	木活字本	1冊	一山文庫

〈表 8〉은 國內 古書目錄들에 산견되는 朝鮮 救急醫書들을 추려 모은 現傳리스트로서 그 중 國立中央圖書館에 傳하는 「鄉藥救急方」은 日本 소장 木板本 1卷을 影印하여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며 「故事撮要」, 「增補山林經濟」는 독립된 救急書는 아니나 별도의 「救急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포함시킨 것이다.

救急書의 刊行은 그 시기로 보아 朝鮮全般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특히 朝鮮前期에 해당하는 世祖 ~ 宣祖初期까지는 諺解本이 많이 印刊되는 등 醫書 刊行사업이 활발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世祖나 成宗의 醫學에 대한 개인적 관심의 영향도 컸으며, 당시 醫療기관이 흔치 않았고 주로 民間治療에 의존하였던 사정을 감안할 때 일상 응급치료에 중요하게 사용되었을 救急書에 대한 일련의 諺解는 아무래도 一般民間의 사정과 편의를 고려한 出版의도와 보급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소장된 版本은 주로 木板本, 寫本이되 活字本의 경우 사용된 活字는 乙亥字인 것을 보면 本 活字가 특히 朝鮮의 救急醫書 刊行에 주로 사용된 活字임을 알 수 있다.

乙亥字는 世祖가 즉위하던 1455年 壬命으로 주조된 후 주로 壬辰倭亂 以前까지 계속 사용된 活字로서, 〈表 8〉에 기록된 것 외에도 國內 여러 書目들에서 本 活字印本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그중에는 方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 V. 結 論

이상으로 朝鮮時代に 編纂, 刊行된 救急醫書에 대해 각종 史料를 中心으로 歷史的 觀點에서 살펴보고 歷代書目 및 目錄에 의거 書誌調査를 통한 形態書誌的 分析을 시도하였다.



그 내용을 綜合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 최초로 傳來된 中國의 救急을 다룬 醫書는 晉代 葛洪의 「肘後方」이 百濟에 수입된 것이다. 「肘後方」은 民間醫藥 固有方書로 알려진 「百濟新集方」의 編纂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引用된 것으로 이후의 救急醫書 編纂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된다.

「肘後方」을 시작으로 唐, 宋, 明代의 中國 救急方書들의 傳來가 계속되었는데 각종 史料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唐의 「千金方」, 「千金翼方」, 「海上仙方」, 宋의 「救急仙方」, 明의 「拯急遺方」, 「加減十三方」, 「救急易方」, 그리고 編纂時期가 확인되지 않은 「胎產救急方」, 「備急方」, 「備急大典良方」등 10여종에 이른다.

둘째, 이들의 영향과 자주적 노력에 의해 刊行된 國內救急醫書로는 高麗때 이루어져 朝鮮時代 太宗 17년에 重刊된 「鄉藥救急方」을 시초로 朝鮮時代 전반에 걸쳐 刊行된 救急醫書 약 10여종을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朝鮮前期(世祖 ~ 宣祖初期)에 救急醫書의 刊行이 더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國內外 諸書目 및 目錄에 수록된 救急書들의 書誌調査를 통한 分析 결과 <表 7>에서와 같이 「故事撮要의 冊板目錄」上 壬辰倭亂 以前에 각 지방에 산재했던 前期 印本들을 살펴봄으로써 그중 數종에 달하는 救急醫書들의 각 地方板, 中央官板, 私家板들을 확인하였고, <表 8>과 같이 國內目錄上의 現傳 救急醫書를 綜合한 결과 역시 약 10여종이 각 圖書館에 전하고 있으며 世祖 ~ 宣祖初期 사이에 諺解本이 많이 印刊된 것은 當代 王들의 醫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하였을 뿐 아니라, 救急書들이 주로 일상응급 치료에 사용된 밀접한 民間 상용서였음을 감안한 출판의도와 그 보급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刊行에 사용된 活字는 주로 乙亥字로서 1455年(世祖1年) 주조후 壬辰倭亂 以前까지 實錄을 비롯한 각 분야의 書籍印刊에 사용된 것으로 이 중에는 醫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記錄上의 모든 자료를 일일이 現存本과 대조, 확인하여 내용을 分析하고 더 구체적인 形態書誌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綜合的인 研究의 발전이 과제로 남아 있다.

〈參考文獻은 脚註로 代身함〉

##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Gu Geub Eui Seo (救急醫書) that were Published During Yi-Dynasty

Lee, Noe Kuk\*

### (Abstract)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ttempt a bibliographical analysis of Gu Geub Eui Seo (救急醫書) that were published during Yi-Danasty.

In this Study matters that were treated concretely are the same as follows :

1. Formulation of a system about Gu Geub Eui Seo (救急醫書) that were published from Three Kingdoms to Yi-Dynasty.
2. Background of each period about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mathematical materials.
3. Investigation to transiton, block book and domain of subject of Gu Geub Eui Seo (救急醫書) through analysis on each period of publication.

But it was not easy to contrast materials on each catalogue with existed books one by one.

In further, We must a new chance for better appreciation about Yi-Dynasty's Gu Geub Eui Seo (救急醫書) through contineous studies to this field.

---

\*Daelim Technical College.